

성남시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의식에 대한 조사

송귀숙[†] · 안용순¹ · 김미정²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¹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²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A Study on How 12 Year-Old Children are Aware of the Dental Health in Seongnam city

Kwui-Sook Song[†], Yong-Soon Ahn¹ and Mi-Jeong Kim²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Seoul Health College, Seongnam-City 461-713, Korea

²Health Promotion Center, Asan Medical Center, Seoul-City 134-020, Korea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how our children are aware of dental health and motivate them to learn reasonable knowledge about dental health. Furthermore, it also aimed to induce them to change their awareness and behavioral style about dental health, so that they may keep good habits for dental health for their lifetime. Total 1,04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hildren who were all 12 years old and lived in Seongnam city. During six months (June to December 2002), they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questionnaire survey about consumer behavior, knowledge, attitude, activity and self-diagnosis for dental health.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can be outlined as follows: (1)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consumer behavior for dental health showed that 34.5% of total respondents ever visited dental clinics once or more within latest one year, 21.4% ever visited dental clinics for the sake of prevention, 70.6% were instructed in dental health program, 31.7% were treated with the fluorination, 36.9% were treated with dental sealant, and 17.1% were treated with scaling, respectively. (2) For 10 items asking reasonable knowledge about dental health, respondents answered to 5.06 items on average. (3) For 10 items asking reasonable attitude for dental health, respondents answered to 5.41 items on average. (4) For 10 items asking reasonable behavior, respondents answered to 4.53 items. (5) For 10 items asking reasonable self-diagnosis for dental health, respondents answered to 5.65 items.

Key words Childern, Aware dental health, School d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

서 론

인간행복의 요건에는 의식주와 함께 건강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강보건의 무언보다 중요하다¹⁾.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양식의 변화는 만성병 유행율의 증가를 초래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구강보건의 경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경제적 성장, 마스크의 발달, 치과의료산업의 발달 및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향상되고 있지만 인식의 개선은 이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구강질환의 유행율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아동에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1995년에는 76.1%, 그리고 2000년에는 77.1%로 조사되었고, 일인당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영구치수는 3.11개에서 3.3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²⁾. 우리나라 국민이 치아를 발거하는 원인의 75.2%가 치아우식증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5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치아우식증이 치아 발거 원인의 100.0% 이었다³⁾.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은 아동기에 가장 빈발하고, 치주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구강질환의 특징은 일단 발병하여 자각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고, 또한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소모되고 고통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강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의식과 관리능력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학령기의 아동은 구강보건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구강보건관리능력 역시 미약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치아우식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731-9814

Fax: 063-840-1269

E-mail: sk7664@naver.com

증을 포함한 구강질환의 발생율이 높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구강보건행동은 일생동안의 구강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⁴⁶⁾, 학령기의 구강보건이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⁷⁾. 이는 이때 형성된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실천이 장차 일생을 통하여 구강보건관리를 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선생님에 의해 기본적인 잇솔질에 대한 동기유발을 포함한 구강보건지식이 교육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와 선생님은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많지 아니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파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조사한 문헌들을 보면 김⁸⁾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강보건관리실태에 대하여, 이⁹⁾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관리실태에 대하여, 김과 남¹⁰⁾은 초·중등학교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대하여, 김 외¹¹⁾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 및 행동에 대하여, 송¹²⁾은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실태에 관하여 조사 발표한 바 있다.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아동의 구강보건의식을 파악하고,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구강건강에 이로운 습관을 일생동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12세의 경우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성남시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과 자가 구강건강평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분석 검토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거주하는 12세 아동 1,044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000년도 국민구강보건의식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이번 조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한 문항과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및 자가 구강건강평가에 관련한 각각 10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로 자체 개발하여 12세 아동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는 현장 설문 조사법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소비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 및 자가 구강건강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2.3%, 여자 47.7%였으며, 부모의 취업상태는 두 분다 취업

하는 비율이 49.1%, 한 분만 취업하는 비율이 41.1%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50.0%, 58.2%로 높았으며, 연평균 월 소득은 250만원 이상 20.4%, 150-200만원 미만 17.8%, 200-250만원 미만 1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당구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비해 다소 높은 일반적 특성을 보이는데, 한 분만 취업하는 비율이 52.6%로 높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응답자율			
	전체(명)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별				
남자	52.3(546)	57.6	49.0	49.0
여자	47.7(498)	42.4	51.0	51.0
부모 취업상태				
두분 취업	49.1(513)	52.1	54.0	39.9
한분만 취업	41.0(428)	36.7	35.5	52.6
모두 미취업	2.2(23)	2.7	1.8	2.0
기타	5.9(62)	6.7	6.9	3.9
무응답	1.7(18)	1.7	1.8	1.6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미만	13.0(136)	19.6	12.5	4.9
고졸	50.0(522)	54.8	60.6	32.0
(전문)대학졸	26.7(279)	16.4	20.9	47.1
대학원졸	6.9(72)	5.2	2.7	13.7
무응답	3.4(35)	4.2	3.3	2.3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미만	18.2(190)	26.1	18.5	7.5
고졸	58.2(608)	61.0	66.6	45.4
(전문)대학졸	16.9(176)	6.9	9.0	38.6
대학원졸	3.4(35)	2.2	1.8	6.5
무응답	3.4(35)	3.7	4.2	2.0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2.7(28)	3.7	2.1	2.0
50 - 100만원 미만	9.2(96)	12.4	10.4	3.6
100 - 150만원 미만	16.6(173)	22.1	16.7	9.2
150 - 200만원 미만	17.8(186)	16.1	24.8	12.4
200 - 250만원 미만	17.1(179)	14.9	17.3	19.9
250만원 초과	20.4(213)	14.6	16.7	32.0
무응답	16.2(169)	16.1	11.9	20.9

2. 구강보건소비행동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소비행동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34.5%였으며,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가 21.4%, 그렇지 않은 경우가 76.5%였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학교집단교육 56.6%, 개별교육 11.9%, 보건소 집단교육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소도포는 31.7%, 홈 메우기는 36.9%, 스케일링은 17.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당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험, 예방목적의 방문경험, 개별교육의 경험, 홈 메우기의 경험 및 스케일링의 경험 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구강진료기관의 방문경험과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응답자율			
	전체(명)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강진료기관 최근방문시기				
6개월 이하	17.4(182)	14.1	6.7	22.5
6개월 - 1년	17.1(179)	14.1	14.0	24.5
1 - 2년	13.5(141)	10.9	13.4	17.0
2 - 5년	4.4(46)	3.5	6.9	2.9
5년 이상	1.6(17)	1.0	2.7	1.3
이용한적 없음	8.4(88)	10.7	7.2	6.9
모름	35.7(373)	43.4	37.6	23.5
무응답	1.7(18)	2.2	1.5	1.3
예방(검진)목적 치과병의원 방문경험				
있음	21.4(223)	19.4	21.2	24.2
없음	76.5(799)	78.9	76.7	73.2
무응답	2.1(22)	1.7	2.1	2.6
구강보건교육경험				
개별교육	11.9(124)	10.7	10.1	15.4
보건소집단교육	2.1(22)	1.2	3.3	2.0
학교집단교육	56.6(591)	52.9	59.7	58.2
없음	21.4(223)	26.1	18.8	18.0
기타	3.6(38)	4.7	3.0	2.9
무응답	4.4(46)	4.5	5.1	3.6
불소도포경험				
있음	31.7(331)	37.5	29.6	26.5
없음	62.1(648)	55.8	64.2	68.0
무응답	6.2(65)	6.7	6.3	5.6
홈 메우기경험				
있음	36.9(385)	25.6	34.3	54.6
없음	57.5(600)	66.7	59.7	42.8
무응답	5.7(59)	7.7	6.0	2.6
스케일링경험				
있음	17.1(179)	14.1	17.0	21.2
없음	75.9(792)	46.9	76.4	73.9
무응답	7.0(73)	8.9	6.6	4.9

3. 구강보건지식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을 조사한 결과 총치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문항에서 66.7%가 확실히 맞다, 맞다라고 대답했으며, 15.1%가 확실히 틀리다, 틀리다라고 대답했다. 설탕 등 단 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는 문항에서 86.9%가 확실히 맞다, 맞다라고 대답했으며, 7.5%가 확실히 틀리다, 틀리다라고 대답했다. 흡연과 구강건강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9.0%가 상관이 없다고, 80.0%는 상관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구강보건지식과 관련한 10가지 문항에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응답율이 분당구에서 5.25개로 다소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5.06개로 나타났다(표 3, 4).

4.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태도를 조사한 결과 치아표면의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 잇솔질을 한다는 문항에서 62.4%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13.3%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너무 바빠서 치과에 가기 힘들다고 느낀다는 문항에서 28.4%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59.2%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10가지 문항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응답율이 전체적으로 5.41개로 나타났다(표 5, 6).

5. 구강보건행동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을 조사한 결과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는 문항에 79.8%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13.5%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는 문항에서 19.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68.1%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구강보건행동과 관련된 10가지 문항에서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응답율이 4.53개로 나타났다(표 7, 8).

표 3. 구강보건지식과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질문 문항	응답자율					
	확실히 맞다	맞다	틀리다	확실히 틀리다	모르겠다	무응답
1. 충치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17.7	49.0	12.9	2.2	17.8	0.3
2. 설탕 등 단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	37.7	49.2	6.4	1.1	5.4	0.1
3. 유치에 충치가 있으면 영구치에도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10.5	34.1	10.6	2.7	41.7	0.4
4.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이용해야 한다.	18.0	38.5	10.0	1.4	31.8	0.3
5. 수돗물불소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충치예방방법이다.	5.8	16.5	27.2	7.5	42.8	0.2
6. 잇몸병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15.1	40.4	12.9	3.1	28.3	0.2
7. 잇몸병으로 부어있는 부위에는 잇솔질을 하지 않는다.	8.4	23.0	29.4	8.0	31.0	0.1
8. 스케일링에 의해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	6.4	16.3	27.7	11.4	38.0	0.2
9. 흡연은 구강건강과 상관없다.	5.0	4.0	24.3	55.7	10.8	0.1
10. 치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작용으로 빠진다.	21.9	35.2	11.8	4.4	26.5	0.1

표 4. 구강보건지식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	1,038	402	335	301
평균점수±표준편차	5.06±1.82	4.87±1.81	5.13±1.82	5.25±1.82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 개수로 계산되며, 10점 만점임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표 5.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질문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1. 치통이 생기기 전 까지 치과를 가지 않는다.	12.0	35.1	30.9	11.4	10.3	0.3
2. 충치를 질병으로 실제 생각지 않는다.	5.7	16.8	43.0	20.4	13.8	0.3
3. 잇몸병은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15.8	40.4	21.8	3.4	18.3	0.3
4. 치아표면의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 잇솔질을 한다.	21.2	41.2	10.0	3.3	23.8	0.7
5.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낀다.	24.0	35.7	18.8	6.8	14.4	0.3
6. 충치예방을 위하여 불소가 배합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8	30.5	18.8	5.7	28.0	0.4
7. 치약 없이도 치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	14.3	38.7	29.2	11.5	0.3
8. 너무 바빠서 치과에 가기 힘들다고 느낀다.	9.1	19.3	38.0	21.2	12.1	0.3
9.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44.1	37.5	6.5	3.3	8.4	0.3
10. 여러 건강문제들 가운데, 충치 혹은 잇몸병 등의 구강건강문제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4	29.9	20.7	5.8	25.9	0.3

표 6. 구강보건태도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1,037	402	335	300
평균점수±표준편차	5.41±2.02	5.46±2.10	5.35±1.98	5.41±1.95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 개수로 계산되며, 10점 만점임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표 7. 구강보건행동에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질문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1. 잇솔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를 주의 깊게 닦는다.	19.9	44.3	19.3	2.1	14.0	0.4
2. 잇솔질을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치아 하나 하나를 주의 깊게 닦는다.	13.2	29.6	40.0	4.7	12.0	0.5
3.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	31.2	48.6	11.1	2.4	6.2	0.5
4. 구강병예방을 위해 치실 혹은 치간칫솔을 사용한다.	7.6	13.4	35.2	10.8	32.5	0.5
5.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	8.4	10.7	44.8	23.3	12.4	0.4
6. 성분을 확인하고서 치약을 구입한다.	8.0	16.8	39.6	16.6	18.7	0.4
7. 2-3달에 한번씩 칫솔을 교체한다.	24.1	35.9	19.2	6.4	14.0	0.4
8. 잇솔질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4.2	31.8	27.0	13.3	13.3	0.4
9. 잇솔질 후 거울을 통해 치아상태를 확인한다.	23.8	42.6	17.2	6.4	9.6	0.4
10. 잇몸색 등을 관찰하여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한다.	10.7	21.9	34.6	10.1	22.3	0.4

표 8. 구강보건행동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1,037	403	335	299
평균점수±표준편차	4.53±2.16	4.39±2.24	4.60±2.07	4.65±2.15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 개수로 계산되며, 10점 만점임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6.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자의 자가 구강건강평가를 조사한 결과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어렵다라는 문항에서 20.7%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73.3%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치통으로 인해 고통스럽다라는 문항에서 8.2%가 매우 그

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85.3%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자가 구강건강평가와 관련된 10가지 문항에서 바람직한 평가에 대해 분당구가 5.88개로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5.65개로 나타났다(표 9, 10).

표 9.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과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질문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1. 잇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7.7	23.1	36.4	25.1	7.2	0.1
2. 입냄새로 인해 대화할 때 주의한다	9.2	24.6	37.0	13.9	14.7	0.7
3.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어렵다	6.2	14.5	40.7	32.6	5.6	0.5
4.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6.9	16.6	40.3	30.2	5.6	0.5
5. 빠뜨빠뜨한 치아로 인해 웃을 때 조심한다	5.6	12.6	38.0	35.7	7.6	0.5
6. 현재 치통으로 인해 고통스럽다	3.6	4.6	36.2	49.1	5.9	0.5
7. 치아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	9.5	31.5	33.6	11.7	13.1	0.6
8. 나는 비교적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	7.9	31.3	28.2	4.3	27.8	0.6
9. 나는 노인이 되면 틀니를 하게 될 것이다	5.8	13.9	24.7	15.0	39.9	0.6
10. 나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다	6.5	16.4	23.9	8.2	44.3	0.7

표 10. 자가 구강건강평가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1,038	402	335	301
평균점수±표준편차	5.65±2.25	5.54±2.27	5.57±2.17	5.88±2.31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 개수로 계산되며, 10점 만점임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고 찰

12세 아동의 경우 유치와 영구치로 교환되어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구강보건교육과 효과적인 구강보건관리는 평생동안의 구강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 중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조사는 학교구강보건사업과 치아우식증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72년에 한국구강보건협회가 0.6개 이었다고 보고¹³⁾한 이후, 1979년에 2.3개¹⁴⁾, 1990년 3.03개로 급증하고¹⁵⁾, 1995년에 3.11개¹⁶⁾ 그리고 최근의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의 3.30개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²⁾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성남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소비행동, 지식, 태도, 행동과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구강보건소비행동을 조사한 결과 구강진료기관의 최근 방문 경험은 34.5%가 1년 이내로 대답했으며, 송¹²⁾의 연구에서의 45% 보다 낮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35.7%가 대답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예방을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21.5%, 그렇지 않은 경우가 76.5%로 나타나 정기적인 검진보다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를 목적으

로 방문하는 사례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구강병이 예방이 가능하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면을 감안 할 때 앞으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었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학교집단교육 56.6%, 개별교육 11.9%, 보건소 집단교육 2.1% 순으로 나타나 현재 학교에서 집단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집단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이며 일방적인 교육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 구강보건교육의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불소도포는 31.7%, 홈 메우기는 36.9%, 스케일링은 17.1%가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처치가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는 홈 메우기 경험이 7.0%와 불소도포 경험이 5.3%를 보고한 송¹²⁾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치과 의료기관의 이용 행태가 예방중심이 아닌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분당구가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험, 예방목적의 방문경험, 개별교육의 경험, 홈 메우기의 경험 및 스케일링의 경험 등에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당구가 타 구에 비해 부모의 맞벌이 비율이 적으며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조사결과 치아우식증의 원인에 대한 지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수돗물 불소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이라고 22.3% 만이 대답해 수돗물불소화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불소를 대중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불소용액사업을 확대시키고, 자가도포용 불소용액의 제조판매 및 불소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충치예방을 위해 잇솔질 뿐 아니라 불소도 일

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또한, 구강보건지식과 관련된 10가지 문항에 대한 올바른 응답율에서 수정구 4.87개, 중원구 5.13개, 분당구 5.25개로 분당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구강보건지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5.06개에 불과해 이에 대한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조사결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81.6%가 배우고 싶다고 대답해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고,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이 적용된다면 높은 교육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구강건강의 문제가 다른 어떤 건강의 문제보다도 47.3%가 중요하다고 대답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10가지 문항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응답율은 수정구 5.46개, 중원구 5.35개, 분당구 5.41개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5.41개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구의 바람직한 구강보건소비행동이 구강보건태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이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잇솔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올바른 행동을 보이거나 치실 및 치간치솔을 21.0%가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19.1%가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다고 대답해 구강위생용품의 활용과 정기적인 구강검진에 대한 학교구강보건교육이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바람직한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응답율이 4.53개로 절반 미만이어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응답율보다 낮아 아동이 소지한 지식과 태도를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들의 구강보건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사료되었다.

구강건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 바람직한 평가에 대한 응답율이 5.65개로 지식, 태도, 행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스스로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32.5%나 대답했고, 구강건강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22.9%가 좋다고, 32.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아직도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대한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어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교육하여 구강보건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가 구강건강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결 론

아동의 구강보건의식을 파악하고,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습관을 일생동안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12세 아동 1,044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에서 12월까지 구강보건에 대한 소비행동, 지식, 태도, 행동 및 자가 구강건강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보건소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

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34.5%, 예방목적으로 방문이 21.4%,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70.6%, 불소도포의 경험이 31.7%, 홈메우기의 경험이 36.9%, 스케일링의 경험이 17.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지식을 살펴본 결과 충치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66.7%가 대답했고, 설탕 등 단 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고 86.9%가 대답했으며, 10가지 문항에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응답율이 5.06개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태도를 살펴본 결과 치아표면의 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 62.4%가 잇솔질을 한다고 대답했고,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81.6%가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10가지 문항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응답율이 5.41개로 나타났다.
4. 구강보건행동을 살펴본 결과 잠자기 전에 79.8%가 잇솔질을 한다고 대답했고, 잇솔질 후 거울을 통해 치아상태를 66.4%가 확인한다고 대답했으며, 10가지 문항에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응답율이 4.53개로 나타났다.
5. 자가 구강건강평가를 살펴본 결과 비교적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고 39.2%가 대답했고, 구강건강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다고 22.9%가 대답했으며 10가지 문항에서 올바른 평가에 대한 응답율이 5.65개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남철현, 이시백, 전병훈, 최상범: 바른건강생활. 보건사회부, pp69-90, 1982.
2. 보건복지부: 2000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pp7-8, 2001.
3. 노인기,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한국사람 치아발거원인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전학회지 22(3): 186-189, 1998.
4. 김영훈: Dental caries의 역학적 연구. 최신의학, 1965.
5. 차문호, 장세만, 김진태: 한국인 국민학교의 def, DMF에 관한 연구. 종합의학, pp8-97, 1989.
6. 김종배: 치의학개론. 고문사, pp137, 1989.
7. 김주환, 김종배, 최유진, 김종열: 구강보전학. 1984.
8. 김영훈: 국민학교 아동들의 구강보전관리에 대한 고찰. 종합의학, 1977.
9. 이위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민학교 학생의 구강보전관리실태조사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5.
10. 김교용, 남철현: 초등학교의 구강보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한국교육보전학회지 13(2): 295-317, 2000.
11. 김영경, 문혁수, 정제연, 한수진, 이병진, 김은경, 정혜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구강보전에 관한 인식 및 행동. 한국교육보전학회지 14(1): 73-81, 2001.
12. 송경희: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3. 대한구강보전협회: 한국인 구강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보고. 1972.
14. 김무실: 대도시인의 구강보전실태 및 상대구강보전의료수요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전학회지 4(1): 19-48, 1992.
15. 김희찬, 문혁수, 김종배: 한국인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치대논문집 16(1): 17-48, 1992.
16. 국민구강보전연구소: 1995년 국민구강보전실태조사보고. 1997.

(Received June 5, 2004; Accepted June 14, 2004)

